



# 여명

현대청운고 1-4 진서윤

모두가 잠든 새벽, 이곳에는 깨어있는 이들이 있다.

나는 기숙학교에 다닌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나와 친구들은 집이 아닌 학사로 향한다.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점호를 마친 우리가 하는 것은 휴식이 아닌 다시 한번 펜을 잡는 일이다. 주변 건물의 빛이 꺼지기 시작하는 밤 12시에 이곳의 일과는 다시 시작된다. 스탠드를 켜고, 미처 다 하지 못한 공부를 위해 찬장에 쌓여 있는 카페인 음료를 마시며 잠을 쫓는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학생은 잠을 많이 자야 해.’라는 말이 사치스럽다고 느껴진 건 3월이었다. 나는 아직 중학생 티를 벗지 못한 어린애였고 다들 그럴 것이라 생각했다. 참 안일한 생각이었다. 내가 잠을 자고, 쉬고, 노는 시간 동안 친구들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달렸다. 알고 보니 그 아이들은 길게는 몇 년 전부터, 적어도 몇 개월 전부터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더라. 그래서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거리가 더 벌어지지 않으려면 나는 달려야 했다. 내가 조강을 좋아하든 마라톤을 좋아하든 상관없었다. 이곳의 경기는 무조건 빨라야만 했고, 우사인 볼트 같은 아이들의 무리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휴식 시간에도 더 움직여야만 했다.

나와 같이 놀기를 좋아하던 중학교 친구들과 연락할 때면 ‘어떻게 그렇게 사냐, 힘들지 않냐’는 질문이 온다. 나의 답은 ‘그냥 하는 거지, 뭐’였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춥고 어둡다는 말이 있다. 당연히 힘들지, 하기 싫지. 근데 이 아픔은 내가 빛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매일 밤을 버텼다. 다시 한번 찬물로 세수를 하고, 카페인 음료를 따고…

그렇게 반년을 보냈다.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책상에 앉았는데, 달이 보였다. 아무리 빛을 내도 영영 어둠 속에만 있을 달의 운명이 처량하게 느껴지면서, 나도 저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다. 나도 영원히 이렇게 애매하게 빛을 내다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닐까, 태양만큼 밝게 빛날 자신이 없었고 그런 생각이 들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반년 만에 긴 잠을 청했다.

그날 이후 내 일과에 새벽은 없었다. 무조건 12시가 되면 잠을 잤다. 점점 친구들과 격차가 벌어지고 낙오자가 되어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이후로는 노력의 가성비 따지기 시작했다. 힘든 일 이후에 좋은 날이 온다지만 누군가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나의 노력을 참으로 초라하게 만들었다. 학생으로서 부릴 수 있는 최고의 배짱인 새벽잠을 나는 흠뻑 즐겼다.

수험생에게 있어 새벽은 기회의 시간이다. 남들이 잘 동안 내가 깨 있으면 그만큼 따라잡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엔 따라잡힌다. 그 시간을 그리 흘려보냈으니 어찌 돌이킬 수 있겠는가. 종종 ‘그래도 계속할 걸.’ 후회했지만 이미 찍힌 성적은 나를 더욱 나태하게 만들었다.

공부를 하는 쪽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길고 긴 밤을 홀로 싸워야 했다. 옆에 있는 룸메이트는 동지가 아닌 경쟁 상대였다. 내 친구 A는 매일 밤마다 올면서도 펜을 잡았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자꾸 떨어지지만 하던 A는 걸음으로 티를 내지 않았지만 나름의 고민을 이고 달리고 있었다.

한두 달을 더 보냈을까. 나와 A는 각자가 지내온 새벽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의 후회와 나태에 대해, A의 정체와 불안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눴고 우리는 끝없는 어둠 속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잘 지내기 위해선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했다. 중점. 언제 끝난다는 중점이 우리에게겐 필요했다. 목표가 필요했다.

그러고 보니 나와 A에겐 목표가 없었고 꿈이 없었다. 그제야 알았다. ‘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건 공부도 성적도 아닌 꿈이었구나. 남과 비교하면 끝없는 어둠만이 생기지만 내 길을 걸으면 그 길 자체가 빛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의 깨달음은 각자가 지나오던 그 힘든 시간들의 희망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남들을 따라잡기 위한 공부를 하지 않았다. 새벽에 다시 하기 시작한 공부는 국과수에 취업하겠다는 내 꿈을 담은 공부였다. A도 그랬다. 의대를 목표하던 A는 수시 커트라인이 아닌 자신의 비전, 남을 돕겠다는 삶의 목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누구나 새벽을 지난다. 고등학생은 성인이라는 태양이 되기 직전 가장 외롭고 추운 그 시기와 같다. 지나지 않을 수 없고, 많이 힘들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한 줄기 빛을 잡아야 한다. 아무런 의미 없이 공부하고 논다면

아마 시간이 흘러도 혼자 어두컴컴한 방에 있으리라.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새벽의 여명이 된다. 그 여명은 우리가 아침으로 향하는 여정의 길잡이요, 어둠 속 등대가 된다. 비교는 어둠을 땀뿌게 하지만, 나 자신의 꿈은 그 길을 벗어나 바른 곳으로, 밝은 곳으로 나를 데려가리라 믿는다.

나와 같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다.

나의 행복은 비교를 멈추고 여명을 찾는 것에서 왔다고.

그리고 정말, 정말 누구에게나 아침은 올 것이라고.

